



전통의 윤리와 도덕이 살아있는 포천건설

포천향교 제26대 전교 정기용



지난 7월6일 제26대 포천향교 전교로 전 선공관유도회 포천시지부 정기용(74·사진) 지부장이 취임했다. 신입 전교는 취임사에서 "포천향교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며 포천의 인물을 배출하고 이 지역의 정체성을 이어나오는 교육기관으로 포천이 인

포천향교는 정신문화의 정체성 대표하는 교육기관

물의 고장이라는 이름을 갖게 만든 이 지역 정신문화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교육기관"이라고 강조하고 "오늘날 물질우선의 황금만능주의에서 오는 퇴폐된 도덕을 바로잡아 건전한 정신의 전통문화를 지켜 나가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기관"이라고 밝혔다.

포천향교 고유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교는 우선 포천향교의 재정상태가 건전한 흑자재정으로 전환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든 사업은 사업자금이 소요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리력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전교는 "현재의 향교 재정 상태는 최악의 상황으로 알고 있

다"며 "이같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천향교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향교재단에 건의하고 지역유림들을 대표하는 원로님들과 장의회의 지원을 받아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체교육을 강화해 내실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매월 삭일과 망일에 실시하는 분향례를 확대하여 전문인력인 유림을 확보하여 유교의 자생능력을 향상시키며 친화와 대화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

또한 연간 교화계획을 세워 유도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이를 실행하고자 하며 포천교육청과 협의해 학생들에게도 전통예절교육을 실시해 지역의 정체성확립과 '예도의 고을'에 맞는 인재양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교는 포천향교 출신 인물들을 연구해 귀감이 될 자료들을 개발하고 근현대를 이끌어온 포천출신의 선구적인 학자들을 연구하여 귀중한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전파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는 포천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에 대해 "포천대하여 전문인력인 유림을 확보하여 유교의 자생능력을 향상시키며 친화와 대화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

또한 연간 교화계획을 세워 유도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이를 실행하고자 하며 포천교육청과 협의해 학생들에게도 전통예절교육을 실시해 지역의 정체성확립과 '예도의 고을'에 맞는 인재양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교의 임기는 2007년7월1일부터 2010년6월30일까지 3년간이며 포천향교에는 현재 1천100여명의 유림이 참여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韓國의 선비정신 · 71

공명정대(公明正大)한 문익공(文翼公) 정광필(鄭光弼)

정광필 프로필

1462년(세조 8) ~ 1538년(중종 33). 본관은 동래(東萊)이며 자는 사훈(士勳), 호는 수부(守夫)이다. 1492년(성종 23) 진사에 오르고 그 해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으며, 그 후 성균관학유·의정부사록·봉상시직장을 지냈다. 1504년(연산군 10)에 직제학을 거쳐 이조참방이 되었는데, 임금의 사냥이 너무 잦다고 간하였다가 아산으로 유배되었다. 중종반정 후 부제학에 올랐으며 이조참판·예조판서·대제학을 거쳐 1510년에 우참찬으로 전라도 순찰사가 되어 삼포왜란을 수습한 후 병조판서에 올랐다. 1513년 우의정과 좌의정을 거쳐 1516년 영의정에 올랐다. 1519년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조광조를 구하려다 영종추부사로 좌천되었으며 1527년 다시 영의정에 올랐다. 1533년 비술에서 물러나 회덕에 머물고 있었는데, 당시 영의정이던 김안로의 무고로 김해로 유배되었다. 1537년 김안로가 사사(賜死)되자 곧 풀려나 영종추부사가 되었다.



리효종 포천한시사 대표

사치를 부린 것만으로도 그 수렴은 파면되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정광필에게 물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더 큰 죄를 저질렀을 터인데, 어찌 그런 사소한 일로 수렴을 파면시키니까?" 정광필이 웃으며 대답했다. "진도는 바다 한가운데 있고, 수렴 또한 무사 출신이니 반드시 법을 어기고 백성들을 괴롭혔을 것이요, 만일 문서를 압수하여 검토했다면 그는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이요, 차마 그가 사형당 하는 일을 볼 수 없으니 파면시키는 것으로 충분하오."

사람들이 그 이렇게 탄복하였다. 중종 14년(1519) 정광필은 영의정에 올랐다. 그때 나라 안에서는 천재지변이 잇따랐는데 중종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해결할 방도를 물었다. 그러자 여러 신하들이 재변을 그치게 할 방책을 아뢰었다. 그때 한중(韓忠)이 나아가 아뢰었다. "성상께서 정신을 가다듬어 백성들을 구하시고자 하나 비루한 사람이 감히 영의정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재변이 일어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 영의정을 맡아주지 않으면 임금이 다스림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조화가 끝나고 대신들은 모두 밖으로 물러 나왔다. 그때 정광필의 친구인 우의정 신용개가 얼굴 빛이 변하며 큰 소리로 말했다. "아직 새파란 관리가 면전에서 영의정을 배척하고 있으니 이 버릇을 고쳐놓지 않으면 앞으로 큰 일이오!" 그러자 정광필이 손을 내저으

며 말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성내지 않을 것을 미리 알고 그렇게 말한 것이요, 만약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거러가는 것이 있었다면 비록 그렇게 하고도 권하여도 못했을 것이요, 나는 관직이 높든 사 람들이 과감하게 말하는 기풍을 결코 꺾어서는 안 되오."

주위에 있던 대신들이 그의 아량에 모두 탄복하였다.

때마침 남곤(南袞)이 여러 선비들을 모함하기 위해 정광필을 찾아왔다. 남곤은 초립을 쓴 채 남부한 웃을 입고, 해진 신발을 신고는 직접 걸어서 정광필의 집 앞에 당도했다. 그는 문 앞에 이르러 자신의 신발을 밝히지 않은 채 문지기에게 말했다. "그저 손님이 왔다고 알리거라." 문지기가 자세히 살펴보니 남곤이 분명했다. 문지기는 급히 정광필에게 알렸다. "손님이 왔는데 제가 보기에 이는 분명 남 관서님입니다. 그러나 행색이 너무 초라하여 마치 천한 노비 같습니다."

정광필이 크게 놀라 허둥지둥 나가보니 남곤이 분명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남곤이 대문 안으로 들어와 조용히 말했다. "조광조의 무리를 한 사람이라도 남겨두면 그 폐해가 끝이 없을 것이니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그는 달콤한 말로 꼬이기도 하고 공갈을 치기도 했다. 그러나 정광필은 정색을 하고 말했다. "공이 재상으로서 천한 차림을 하고 거리를 걸어서 것도 괴이한 일인데, 뜻 있는 선비들을 모함하는 것은 더욱 괴이한 일이오, 어서 돌아가시오."

그러하여 남곤은 버럭 화를 내며 웃을 털고 가버렸다. 이후 남곤과 소정(沈貞)이 신진 사림파를 모함하여 마침내 조광조 등이 귀양을 떠났다. 정광필은 이들의 석방을 주장하다가 결국엔 김해로 귀양을 떠나게 되었다. 이로써 김안로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포천 자혜원 노인과 함께 우리춤 나들이

"1시간은 정말 의미 있게 보냈는데 남은 시간은 어떻게 보낼까?" 7월14일 토요일 가족들이 면회를 와 모시고 나가는 경우를 제외하고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1시간동안 신나는 우리 춤을 감상하고 하는 일이다.

이날 공연은 의정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기숙무용단이 경기도의 후원을 받아 마련했으며

5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제공했다.

이날 실시한 공연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통춤과 태평무, 교방인춤, 태평산조, 사랑가, 장고춤 등이다.

공연에 관람한 한 어르신은 "예쁘고 화려한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다"며 "자주 찾아와서 노인들의 여가를 즐겁게 보낼 수 있도



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연에 주최한 이기숙무용단 이기숙 단장은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공연에 나섰으며 좀더 자주 찾아와주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여유가

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자주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좀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장르를 초월한 대 작곡가 조지 거쉬윈(George Gershwin)

20세기 작곡가들 중에 브로드웨이와 클래식 콘서트 홀 그리고 영화음악을 포함한 대중음악계를 넘나든 작곡가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더욱이 이들 세 분야에서 똑같이 성공을 거둔 작곡가는 더더욱 없다. 20세기 후반기에 최고의 뮤지컬 작곡가로 일컬어지는 앤드류 로이드 웨버(Andrew Lloyd Webber)도 1985년에 클래식 코랄 '레퀴엠(Requiem)'을 발표했지만 단 한곡으로 끝을 맺었으며 거쉬윈 만큼 클래식 분야에서도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조지 거쉬윈(George Gershwin, 1898~1937)은 서른아홉살의 생애 동안에 다양한 장르에서 명곡들을 만들어냈다.

거쉬윈의 대부분의 보컬과 연극적인 작업들은 그의 친형인 작사가 아이라 거쉬윈(Ira Gershwin, 1896~1983)과의 협동으로 이루어졌다. 부모가 아이라를 위해 사준 피아노를 조지가 더 즐겨 연주했을 정도로 10세 때부터 음악적인 관심을 보인 거쉬윈은 많은 미국의 위대한 예술가가 그렇듯이 유럽계 미국인 2세였다. 거쉬윈의 부모도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뉴욕에 정착했으며 자식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는 전형적인 유대인이었다. 거쉬윈은 13살에 베토벤 심포니 오케스트라(Beethoven Symphony Orchestra)의 피아니스트였던 찰스 햄비처(Charles Hambitzer)를 만나 햄비처가 죽음을

맞이하는 1918년까지 체계적으로 음악교육을 받았다. 거쉬윈은 햄비처에게 전통적인 피아노 테크닉을 배웠으며 유럽의 전통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도 공부했다. 물론 클래식 음악을 배우는 동안에 거쉬윈은 대중음악에 심취해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쇼단의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기도 했지만 그의 생애에 있어서 햄비처는 음악의 기본기를 심어준 유일한 스승이었다. 대중음악을 작곡하면서 재즈기법을 도입한 거쉬윈은 21세 때인 1919년에 '스완시(Swanee)'를 발표하여 일약 대중음악 작곡가로 유명해졌다. 이후 클래식 음악과 재즈를 조화시킨 '랩소디 인 블루(Rhapsody In Blue)' '피아노 협주곡 F장조(Concerto in F)' '파리의 아메리칸인(An American in Paris)' 그리고 오페라 '포기와 베스(Porgy and Bess)'를 발표하여 미국의 대표적 작곡가로 자리매김했다. 거쉬윈은 클래식 음악가들, 특히 프랑스 작곡가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피아노 협주곡 F장조(Concerto in F)'와 '파리의 아메리칸인(An American in Paris)'은 클로드 드뷔시(Claude Debussy)의 작업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거쉬윈의 관현악 편곡법(Orchestrations)은 모리스 라벨(Maurice Joseph Ravel)의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한 번은 거쉬윈이 라벨에게 음악을 배우고 싶어 레슨을 부탁했는데 라벨은 오히려

에도 영감을 주어진 켈리(Gene Kelly)의 대표작 중의 하나인 '파리의 아메리칸인(An American in Paris, 1951)'을 탄생시켰다. 특히 이 영화의 명장면인 마지막 부분에 거쉬윈의 음악이 18분 동안 그대로 사용되었는데 켈리의 발레 안무와 거쉬윈의 음악이 마치 인상주의 캔버스와도 같은 세트 속에서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이 영화는 그해 작품상, 감독상을 포함해서 아카데미상 7개를 휩쓸었다.

《포기와 베스(Porgy and Bess)》는 3막짜리 재즈 오페라로 1935년에 초연되었다. 초연 당시 출연진 모두가 파격적으로 아프리카 제를 넣었는데 엄청난 성공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인종차별적인 작품이라는 논쟁을 끊임없이 불러일으켰다. 대표곡인 '썸머타임(Summer Time)'은 오페라 이외의 명곡으로 손꼽힌다. 거쉬윈은 안타깝게도 39세의 일기로 뇌졸중으로 숨을 거두었다. 그렇지만 그의 음악들은 현재까지도 많은 영화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으며 각종 무대에서 자주 애창되어 지고 있다.

윤우영 (대진대 교수, 연출가)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205)

하늘 가던 세 사람

옛날 포천에 살던 세 사람이 한 날 한 시에 죽어서 북방산(하늘나라)을 향해 저승사자의 인도로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여보시오, 우리 함께 하늘나라로 동행하게 되었으니 통성명(通姓名)이나 하고 알고 나 가지지요." 그래서, 세 사람은 서로 이승에서 살 때의 이야기를 하며 걷게 되었다. 우람한 체격에다 큰 주먹을 휘두르며 큰 소리로 떠들었다. "나로 말 할 것 같으면 포천 장거리에서 제일가는 주먹대장이었어. 장날 한 판 붙으면 상대는 목사발이 되고 몇 달 병상에 누워야 했으니까요. 한 번 내 주

먹 맛 좀 보실까요?" 곁에 두 사람이 고개를 저었다. "내 소개를 들어 보실까요? 저는 포천에서 제일 가는 천석꾼(千石君)이었어요. 안 먹고, 안 쓰고, 안 주고 피나게 돈을 모아나 보고 자만코비라고도 하지요. 1등 부자였어요." "그럼 저도 한 마디만 하지요. 저는 그저 농사만 짓고 싶었는데 노망하진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고 이렇게 불효자가 되어 황천길을 가게 되었으니 내 부모 누가 모실지 눈물이 앞을 가려 걸음이 걸리지 않는군요." 이제 세 사람이 이승에서 무엇을 하고 어찌 지냈는지 모두 알게 되었다.

드디어 북방산(저승: 하늘나라)에 이르러 옥황상제(하느님) 앞에서 천당으로 보낼지 지옥으로 보낼지 판가름하는 재판장이 열렸다. 주먹대장이 먼저 하늘 앞에서 열을 올리며 떠들었다. "저는 포천 제일 가는 주먹대장(강패두목)이었습니다. 저를 천당으로 보내 주신다면 부모님께 효도를 잘 모시고 어느 놀이도 하고 싶었는데 노망하진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고 이리까지 불효자가 되어 황천길을 가게 되었으니 내 부모 누가 모실지 눈물이 앞을 가려 걸음이 걸리지 않는군요." "그때? 이 고약한 놈 같으니 여기가 어디라고 주먹자랑을 한단 말이나? 너로 인해 얼마나 많은 착한 사람들이 고생을 당하고 울었겠느냐? 저 포천의 주먹대장 놈을 '기름기바

지옥'으로 보내거라" 그래서 주먹대장은 지옥으로 갔다. "저는 포천 제일 가는 부자 천석꾼(千石君)이 자리고비입니다. 제 등을 보십시오. 제 전 재산 팔아서 돈을 지고 왔습니다. 이 돈을 받으시고 저를 재발 천당으로 보내주세요." "그때? 네가 그 유명한 천석꾼이란 말이지? 고약한 놈 저 놈도 지옥으로 보내거라 퐁퐁지옥행이다." "저는 부모님 모시고 뒷산에는 조상님 묘소 받들고 문전독답에 오곡백과(門前玉杵)(五穀百果) 물이 올라 탐스레 먹고 있는 포천이 아니라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지 못하고 먼저 저승길을 온 불효자입니다. 후후..." "그때? 저 효자를 포천 땅으로 다시 돌려 보내 못 다한 효도를 다하도록 하려라." 포천의 효자는 환생하여 지금 한 효성을 부모님께 다 하였다는 얘기가 전한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인터뷰

도덕성 회복 위한 유림의 역할

"문화재보호활동 등 사회참여와 봉사활동 전개하자"

성균관유도회 포천시지부 제26대 회장 이윤우



지난 7월6일 유림회관에서 성균관유도회 포천시지부 제26대 이윤우(66·사진)회장이 취임식을 갖고 취임했다.

이 회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최근 우리사회는 이혼의 급증과 가족 간의 대화 부재로 가정교육의 실종을 불러왔고 이기주의의 출세지상주의에서 비롯된 지나친 경쟁은 인간성의 상실과 가치관이 전도되는 결과가 되고 말았

다"고 지적하고 "이런 사회병리현상을 접하면서 공자님을 비롯한 옛 성현들의 가르침을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어 현대에 맞는 예의문화와 함께 새로운 차원의 도덕성 회복을 위한 유림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회장은 재임기간 동안 4가지 중점사항을 실천해 나갈 것을 밝히고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첫째, 유도회를 좀더 자생력 있는 단체로 만들어가겠다. 일부 임원이나 특정인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고 전회원이 회비를 납부해 회의 운영에 동참하는 제도로 전환하고 회비가 정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둘째, 유도회를 더욱 조직화하고 활성화하겠다. 운영위원회 제도를 시행하고 교문원로 각 읍면동 장의와 감사, 읍면동 유도회장과 시지부 임원 및 각 읍면동 기존 유도회원 중 활동하는 회원이거나 영입되는 신입회원 2~5

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 셋째, 대내외적으로 교육에 중점을 두고 내실화를 이룩해야 하겠다. 총회, 운영위원회, 신입위원회 회의나 매월 사랑, 향교분향회 등을 이용해 유도회원에게 전문이 초빙 특강을 실시하고 분인 토의 연구결과를 발표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다. 넷째, 유도회는 다른 단체와 같이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다. 거리질서 캠페인, 환경보전운동, 향교, 서원, 사단의 주변정화 및 제초작업 등 문화재 보호운동 등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직접적인 사회참여와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년의 임기를 시작한 이 회장은 포천시민들에게 "우리 모두 원만한 가정 이룩하는 세상을 만들고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예의도덕이 바로서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분발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초대 漢詩

願南北平和統一(원남북평화통일)



朴東奎 영북노인대학 학장

南北戰亂繼三年(남북전쟁계삼년) 理念分爭統一前(리념분쟁통일전) 남북의 전쟁이 3년동안 계속 되었는데 통일전까지는 이념의 충돌이 예상되네.

老少同和祈禱地(노소동화기지지) 富貧共濟祝星千(부빈공제축성천) 노소가 함께 화합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빈부가 서로 도우면 국민화합 절로되리라.

交流增進資金擴(교류증진자금광) 怨解收容信賴連(서해수용신뢰연) 남북교류 증진되면 자본이 늘어나고 용서와 화해가 수용되면 신뢰로 이어지겠네.

神佑自強平世就(신우자강평세취) 衆安善政願綿傳(중안선정원면전) 신우하여 자강하면 평화통일 성취되고 대중이 편안히 신정에 이어져 천재지배리라노다.